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보도자료  
(본부장 : 남인순 · 박홍근 의원)

■보도시점 : 배포즉시 ■배포 : 2025.5.23(금) ■담당 : 유경선 팀장 010-8730-3314

[보도자료]

**체육분야 직능인 10만7천여 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민주당 직능본부, “이재명 후보와 함께  
현장 중심 정책으로 국민 체감형 체육 실현 앞장”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중앙선대위) 직능본부(본부장 남인순·박홍근 의원)는 2025년 5월 25일(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4층에서 체육 직능 단체들과 함께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 서명부 전달식’을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체육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동시에 약 10만7천여명의 지지선언문 및 서명부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직능단체 별로 10회에 걸쳐 개최된 이번 행사는 ▲공정·상식 스포츠 포럼 ▲무예 스포츠산업 직능인 ▲스포츠레저·스포츠안전 분야 전국직능인 ▲야구팬과 야구인 ▲대한 유소년 수영협회 ▲인천·경기 어린이 수영지도자 모임 ▲전국 체대입시 지도자 ▲전국체육직능인연대 ▲전국 청년 체육 리더 ▲전국합기도 동호인 등 총 10개 체육 분야 직능인이 참여해, 이재명 후보의 체육 정책 비전과 실천 의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지 선언을 이어갔다.

박홍근 직능본부 본부장은 “청년체육인, 유소년 지도자, 무예단체, 체육직능인 등 다양한 체육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모여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것은, 민주당이 체육의 공공성과 미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도 직능본부가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체육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직능본부 수석본부장은 “체육은 단순한 운동이 아닌 국민 건강과 삶의 질, 청소년의 미래, 지역 경제와 문화와도 직결되는 분야”라며 “이번 지지선언은 체육계가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하는 정책적 역할이 크다는 의미이며, 직능본부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 정책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홍근 본부장과 임오경 수석본부장을 비롯해 이수진 여성본부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했고, 전국청년체육포럼 한희수 위원장, 대한무예스포츠중앙회 이광남 회장, 전국체대입시학원협회 김종걸 회장, 한국스포츠레저교육협회 유동균 회장, 전국체육직능인연대 주대하 대표 등 각 분야 대표들이 차례로 지지 선언문을 낭독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각 단체는 지지선언문을 통해 ▲청년 체육 일자리 확대 ▲유소년 생존수영 및 체육교육 인프라 개선 ▲무도장 생존권 보장과 무예진흥법 개정 ▲체대입시 제도개선 ▲스포츠 안전산업 육성 ▲지역 스포츠 균형발전 등 체육계 현장의 오랜 숙원 과제를 담은 정책 제안을 공유했고, 이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수용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특히 전국 체육직능인 리더 200인은 “체육 발전은 국민 건강과 국가 경쟁력의 초석이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책임자가 이재명 후보임을 확신한다”고 밝혔고, 유소년 수영 지도자들은 “대한민국 체육과 유소년 수영의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발전을 위해 이재명 후보가 필요하다”며 이 후보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이번 전달식을 주관한 직능본부는 향후에도 다양한 직능단체와의 정책협약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체육뿐 아니라 보건, 교육, 복지,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공약 실현을 위해 현장과의 교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붙임 1】



【붙임 2】

